

# 오피니언

## 월/요/광/장

장택규



작년 12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광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세미나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이란 다소 생소한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뺑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뺑을 판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도 유명한 루비콘 베이커리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아름다운 가게'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시과 광주·전남지역은 고령인구 및 취약계층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열악한 수준에 있다.

그렇다고 비판할 할 것은 아니다. 특산물, 문화자원, 자연조건 등에 있어서는 타

지역보다 크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유적, 민속, 축제 등의 향토문화자원과 자연·생태환경 자원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광주·전남 사회적기업 육성하자

이러한 잠재적 자원을 잘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고령화와 취약계층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이다. 사회적기업은 1980년대 영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 정부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0년 말 현재 7만여개의 사회적기업에서 80여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말 현재 총 1천7백 개의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에서 1만4천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이중 광주·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며 매출액 및 수익성 측면에서도 열악하여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열악한 지역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유망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내 다양한 문화예술자원, 먹거리, 생태환경 등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지역발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금년 5월의 여수엑스포와 2015년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등 국제행사 준비 및 사후 활용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 문화전당 내에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1사1사

회적기업 운동', 전문가의 재능기부(probono)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광주·전남 시군구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조만간 개설 예정인 민간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가를 적극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도 사회적기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청년층에게 비전을 주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경제 평론가인 칼레츠키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제시한 바르락한 자본주의로의 진화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자본주의의 미래 방향 설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의 발달이 새로운 길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구례·곡성·담양 선거구 공중분해 안된다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담양·곡성·구례를 비롯한 농촌지역 예비후보들과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 확정 협상을 하면서 도시 선거구 12개를 7개로 통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16일 선거구 획정 합의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영남 2석, 호남 1석을 줄이는 대신 강원 원주, 경기 파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늘리는 '3+3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문제는 민주당 안에 담양·곡성·구례를 비롯한 영·호남지역 3개 농어촌 선거구 해체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해당 지역 예비후보는 물론 지역민, 단체장,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편의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촌을 생활권이 다른 곳으로 떼다 붙이는 게리맨더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담양·곡성·구례는 매번 지역구가 바뀌는 혼신 속에 지역을 대변할 인물을 선별하는데 애로를 겪으며 시 지역발전에도 차질을 빚어왔다. 여야는 인구로만 따지지 말고 농어촌 특성을 감안, 지역을 배려하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 광주 사교육비 증가 6대시 중 가장 높다니

사교육비가 여전히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사정은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줄어든데 반해 가뜩이나 경제여건이 열악한 광주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1만6000원으로, 지난 2010년의 21만3000원보다 1.4% 증가했다고 한다. 전남은 16만7000원으로 전년(16만8000원)보다 0.6% 감소했다.

월 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한 곳은 제주(6.5%), 서울(2.2%), 경북(1.6%), 광주(1.4%), 충남(0.6%) 등 5개 시도이며, 전국 6대 도시 중 인천(-2.7%), 부산(-0.5%), 대구(-2.4%), 대전(-1.7%), 울산(-0.9%)은 오히려 줄었다. 여기에서 사교육비 총 규모에서 전국적으로 3.6%가 줄었으나 광주 1.4% 늘고, 전남은 0.6% 감소에 그쳐 되레 늘어난 셈이다.

이 지역 사교육비 증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학원 및 고액외의 성행 등이 주요 요인이다. 광주에 분원 등을 잇달아 개설한 수도권 기업형 학원과 과목 당 30~50만 원에 달하는 고액외의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해 현 정부가 입시사정판 등 대입제도 개선, 학원 간섭 및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등 '사교육 개혁'을 내세웠지만 지방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다. 여전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곳은 학교가 아닌 학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사교육 문제의 해법은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방과후 학교 내실화와 대입 논술 비중 축소 등 공교육 강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지역적 특색을 살리기 위해 낙후지역에 우수교사 우선 배치 등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법조칼럼



이양희

복숭아와 오얏 꽃이 자기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그 꽃을 보러 다니니라 그 아래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는 말이다. 바퀴 말하면 남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덕을 갖추고 내실을 쌓으면 스스로 자신나 자신의 업적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명성은 저절로 퍼져 남들이 다 알고 그를 찾는다는 의미다.

중국 한나라 경제 때 이광 장군을 흠모한 사마천이 쓴 말이라고 전해진다. 9년 전인가. 처음 법관으로 임관한 뒤 부장관사남을 따라 일주일에 1시간씩 서예를 배웠다. 1년

### 도리불언(桃李不言) 하자성로(下自成路)

이 지난 후 서예부원들끼리 미력하나마 그동안 갈고 닦은 결과물을 서로 선보이자 하여 작은 서예전을 열기로 했었다.

각자 좋은 글을 선택한 후 연습해서 가장 자신 있게 쓴 작품을 출품하는 것이었는데, 필자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부터 너무 어려웠다. 좋은 글을 찾기 위해 각종 책들과 인터넷을 뒤지기를 며칠, 글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이 바로 도리불언 하자성로였다.

그리고 심한 감기로 골골해 있던 필자에게 부장관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이 관사, 관사는 아들 권리도 없어, 당사자들은 분쟁사건을 가지고 법원과 판사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관사가 자기 물관리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던지 말든지 관사는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맡은바 직분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면 결국 당사자나 일반 국민도 판사

가, 법원이 분쟁해결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는지 알아줄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을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연습을 하고 출품한 기억이 난다.

그 뒤로도 필자는 근무지가 옮길 때마다 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무실에 걸어두고 가끔 그 뜻을 되새기곤 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가정지원에 근무하면서는 조정실에 걸어두고 그곳에서 서로 자신은 잘했고, 상대방이 못해서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싸우는 이혼당사자들에게 위 글을 보여주며 그 뜻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만 들을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이 잘한 점, 내가 잘못된 점부터 생각해 보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유했다. 그 후 다시 만난 당사자들 중에는 원만히 화해한 경우도 상당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으로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 영화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서

울중앙지방법원이 국민과 소통을 위해 '소통 2012, 국민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국민과의 대화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사법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고통과 아우 등으로 진행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민과 법원 사이에 계속 불신만이 쌓여가고 있는 지금 다시 '도리불언 하자성로'를 읊미해 본다. 또 있다. 지파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 부지피이지기(不知彼而知己) 일승일패(一勝一負) 부지피부지기(不知彼不知己) 매전필패(每戰必敗).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한다는 의미다.

순사방법에 나오는 말이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국민과 법원이 새롭게 해석해 볼 만할 글이기도 한 것 같다. 국민과 법원, 서로 알게 되면 불신의 늪에 빠질 염려가 없을 것 이지만, 서로 모른 상태가 계속된다면 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질 것이다. 서로 알고 있고 상대를 알아가는 노력이 국민에게도, 법원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광주지법 민사25단독판사〉

## 기고



이승욱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21세기 나라 발전은 교육에 달려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갑담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불만이 쌓이면서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한해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기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서 공부하느라 뒷전이고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한다.

###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의미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4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학자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대학생이 5만여명에 이르며 대출잔액도 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에 정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고리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5년만에 무려 40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근본 대책은 없는 것일까? 물론, 비싼 등록금을 끌어내려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까다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길 말이다. 수년 동안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전남도도 2009년 전국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첫째 학

자금 이자 1%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 시행하여 지금까지 9900여명의 학생에게 6억 5000여만원의 이자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대출금리 3.9% 전액을 전남도에서 지원함으로써 대학기 2000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대출이자 상환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대출금액의 1.9%에 해당하는 이자를 학생들이 부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전액지원은 돈이 없어도 능력만 되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고 자식 대학공부로 힘들어 하는 학부모 부담도 덜어 주면서 오히려 내가 벌어서 내가 갚는다는 자립심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부모도 상환능력이 없거나 취업이 안되면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학자금 이자 전액지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교육은 평등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이 없다면 그 나라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백년 앞을 내다보면서 교육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또 미래 발전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교육을 살리지 않고서는 발전이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농어촌으로 이루어진 전남도 입장에서 교육 경쟁력이 곧 지역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인재육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 대학등록금 문제는 개인이나 특정 가정의 문제로 국한시켜 볼 사안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더 나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몫이 되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번 전남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시책'의 혜택을 받아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병원 응급실 안전요원 24시간 배치방안 마련해야

일마전 광주일보에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기사가 보도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실태를 조사했더니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0.7%나 됐고, 심지어 폭행을 당한적이 있다는 응답도 50%나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실로 기가 막힌다. 다른곳도 아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그것도 손가락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도 최근에 아이가 학교에서 추구를 하다가 상태 선수가 한 발을 눈에 맞아 응급실로 급히 데려간 적이 있었다. 저녁 늦은 시

간이라 응급실에 간건데 마침 우리보다 먼저 응급실에 온 한 젊은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왜 빨리 자기가 데려온 아내를 진료 안하냐고 거칠게 항의하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댔다. 수술도구나 날카로운 의료 기구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험악하고 무섭기까지 했다.

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응급 환자들까지도 험악한 상황에서 어찌 할 도리가 없었고, 의사와 간호사도 전전긍긍 했다.

도대체 사람의 생명의 위급한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진에게 그렇게 험악

하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것을 규명만 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됐다. 병원에 의료진 말고 경비와 당직자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의료진이나 마음 편히 다른 환자들을 진료할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응급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항상 준비된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폭력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 이는 심각한 의료공백과도 같은 이치 아닌가. 이는 결국 다른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뿐이다.

앞으로 법을 만들어 병원의 응급실은 국가(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시설로 구분하고 거기에는 항상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김삼욱·목포시 대방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無等鼓

금배지는 원래 '금(金)으로 만든 배지'를 의미하는 말일 텐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국역사전에 '국회의원을 표시하는 배지'라고 올라있을 정도다. 현재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배지는 은(銀)에다 금을 도금한 배지다. 그런데 언제부터 금배지가 국회의원의 상징이 되었을까.

그 유래는 제헌국회 때 총장 청양 출신의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금금에서 난 금으로 배지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선물한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후 국고 부담으로 순금배지가 지급됐고 10대 국회 들어서는 동(銅)에다 금도금한 것과 순금 두돈종짜리를 함께 지급하게 됐다.

### 금배지



금배지의 재질이 은으로 바뀐 것은 제5공화국 시절인 11대 국회 때. 순금배지가 지나치다는 것 때문이었지만 '군부세력'이 국회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모두 9차례의 디자인 변화를 겪은 현재의 금배지는 국회 규칙에 따라 지름 16.5mm, 높이 12.8mm에 무게는 6g에 불

무리는 아닐 성 싶다. 4·11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금배지' 값을 제대로 한다면야 순금으로 만들어 준들 아까우마는 특권이 눈앞에 자신 영달에 남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회장 <b>金鐘宅</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港樂</b> 편집국장 <b>曹庚完</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211간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광고매김국 227-9600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신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